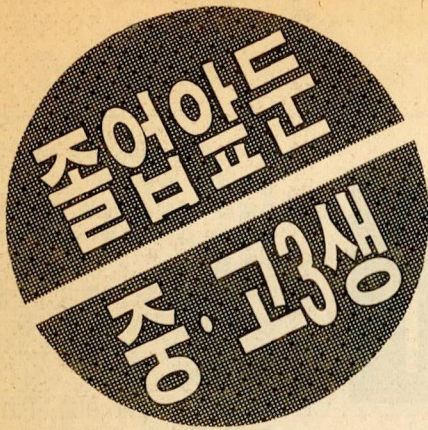




학교마다 성교육 활발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중학교 강당. 바로 이틀전 고입 연합고사를 치른 이 학교 3학년 남학생 1백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성교육을 받았다.

강사인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청소년상담실 김희성 상담원이 학생들로부터 미리 받은 질문지에 따라 이성친구·자위행위·임신 등 궁금했던 점을 설명할 때마다 서로 “너” “너”하며 친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놀리거나 쑥스러운 듯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꺾꺾거렸다.

서울기독교청년회가 마련한 ‘입시 뒤 중고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이날 등촌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 시내 27개

중·고교에서 실시된다. 이 27개교는 서울기독교청년회가 지난 3일 서울시내 중·고교에 보낸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협조 공문’을 보고 신청한 학교들이다.

“정말 중요하면서도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 배울 기회가 없었던 성교육을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입시 뒤에 실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한명섭 간사는

성교육 비디오 <비누방울>을 보고 있는 등촌중 3학년 학생들. 이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정우 기자>



YMCA 프로그램 제공 27개교서 실시 비디오·강의등 통해 ‘성’ 긍정관 심어줘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 간사는 또 몇몇 사회단체가 그동안 학교나 교회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간혹 해왔지만 이번처럼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은 가족계획협의회와 마리아수녀원 등에서 만든 성교육 비디오인 <비누방울> <환상의 무지개> 등을 1시간 정도 보고,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원들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따로 없고 학교에 마땅한 공간이 없을 때는 서울기독교청년회 강당을 무료로 빌려준다.

교육 내용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이성교제 문제를 주로 다루고, 고등학교 3학년은 한단계 높여 성병·미혼모·낙태와 같은 불건전

한 성관계로 일어나는 문제와 예방 대책 등이 중심이 된다.

“물론 두세 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에 대한 고민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김희성 상담원의 이야기이다. 이날 교육을 받은 등촌중학교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의도는 어느 정도 이뤄진 듯하다.

이 학교 3학년 이상경(15)군은 “이성교제가 단순히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란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기독교청년회 청소년상담실(732-8291~8)은 요즘도 계속 성교육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재승 기자>